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8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윤필
편집장	이상필
주최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문면 향산리
인쇄인	김영수

제 544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6월 5일 (화요일)

임·수·경·방·북·1·주·년·및·90·년·대·학·생·방·북·교·류·추·진·기·념·특·집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다 임대표의 길을 따라 실천하는 통일이 있을 뿐이다 눈앞에 해방된 땅이 보이지 않는가

88/10 6 첫방직

보고싶은 임마, 아빠께-
창상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욱더 푸르게, 푸르게만 보이는 가을입니다. 이 느낌엔가 바깥이비린 계절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주해가면 느껴졌던 지난 50일간의 조사시간이 거의 마감이 되어갑니다.

불법 감금 5일, 안기부법실 수사 25일, 검찰취조 30일... 저는 옳은 것에 대한 정의와 진실에 대한, 학우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88/10 10 임마, 감해지세요

임마, 좀더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민회마다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임마의 모습을 두고 돌아서면 지도 마음이 상송생송해요. 그냥 말쑥이 만나 한 3년 근대보낸 것처럼 마음 가져주세요. 머릿이 유학보낸 셈 되던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길에 개서주사나 다행이네요. 아할 신문에 편익한 옥사난글 읽었어요. 10년 길고 만났지만, 임마나 외연하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권력의 발상이 내린 할말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잖아요. 원정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가 제에게 내린 선고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기부 수사관보나 검찰 공소장이나 다른 점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한 죄목(그들이 보기에)을 붙여서 정당성을 나름대로 확보해야 할테니까요. 임마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편에 설 수 없답니다. 그들에게 혹은 제에게 무언가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88/10 21 어둠속에서

임마가 자욱한 아침에는 싸늘한 공기가 한결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침과 밤이 계속되면서도 찬랭한 빛과 어둠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차가운 외장살 너머 비치는 햇살은 어디로 간사들라 해도 알찬한 발음이 되지 못하고, 깊은 어둠이 갈아주는 시간아래에도 제발을 스물세서간 비추는 햇광등 불빛과 창밖의 붉은 달조동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명작처럼 만들었습니다.

할상 이 반대를 믿으셨듯이 지금도 믿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또한 밖에 개선 많은 분들과 학우들이 저를 믿고 계시기때문에 저는 깨끗하게 이생활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끄러워 않은 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배 중인 많은 학우들을 비롯하여 투쟁의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학우들을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오욕의 역사를 밝히는 역사로 연구이어나가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88/11 8 가장 자유로운 생일날

창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는 생일은 그 어느 생일보다도 기쁘어있고, 분노있습니다. 내가 왜 이자리에 있는지,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지, 그때나 혹은 비록 창살안에 갇혀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88/12 7 눈은날 아침

아침엔 눈이 왔어요. 마침 변호사 집회를 가던 길이라 눈송이를 맞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눈이 그쳤어요...

친구들, 학우들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후배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끌려나가는 것은 곧 제가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88/12 21 조카의 탄생소식에

큰오빠에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외창살뿐인 작은 방이지만 가끔씩은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길에 세로이 태어남을 진실로 감사드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손과 발은 얼마나 커여운지, 가끔씩 눈을 뜰때면 무얼 바라볼는지, 온통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집에 아기를음소리가 난다는 것이 실감나는 일지만, 무척무척 커나가기를, 하루라도 빨리 조카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88/1 11 새해의 어느날

임마 제가 벌써 스물세살이 되었습니다. 경북중에서 오렌지병을 듣고 꿈쩍꿈쩍 마시던 유치원생 꼬마가 왕경원에서 임마 손을 놓쳐 영영 유년 꼬마가 벌써 스물세살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는 설날이라는 날에 지도 이곳에서 떡국을 먹었습니다마는 풍물 불이던 떡과 같이 군데군데 통치된 떡국,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반에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죽반이 있는 듯한 그러한 떡국 앞에서 매년 임마가 끓여주시던, 쇠고기국을 부다가 적당히 간이 났을 국물을 만들어 떡과 만두를 넣고, 구운 김 부수러기까지 하여 더욱 맛깔스러운 설 떡국에 시인된 동치미가 생각이 남는 당연한 일이었지요. 양력설은 쇠지 알지만 그래도 매해 설날기분을 맞추느라 떡국을 꼬마꼬마 끓여주시던 임마, 올해에도 떡국을 제대로 드셨는지요. 혹시라도 밥상 앞에서 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못난 자식때문에 눈을 흘리거나 앉으셨는지요...

여러모로 뛰어다니시며 변신을 준비하시던 변호사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에 맞설 변신 역시 할 수 없을 것이고 투쟁방은 제 생각에는 정역 10년 이상은 광견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난민 이종황감사할에서도 말쑥드렸지만 구형방이 많더라도, 또 그 이후 신고(복식)로 마한가지될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마에도 늘어나 다스림 눈물까지 마세요. 마음 줄이 단단히 하고 저를 오래 기다려 줄수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리 하고요. 제에 대한 불평은 방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할말을 가장한 일련의 순화력 뿐입니다. 법원의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판결할 수 없음을 임마도 잘 알고 계시지요?

88/5 3 콜리앗 크레인위의 노동자를 생각하며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에 온 세상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요즈음의 비는 산성비라서 비를 맞고 가니는 낭만도 느낄 수 없답니다. 콜리앗크레인에서 동성하는 현대 노동자들이 격정이 되는 그런 비입니다.

그림 / 김우선 화가

-이 글은 오늘로 옥중생활 2백44일을 맞는 임수경대표가 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중의 일부 발췌문입니다.

6월투쟁 본격화 전망

이경택군 부상, 중심사안으로 부각

서울, 오늘 비상학생총회 노정권 타도등 결의

6월항쟁 3주기를 맞아 본교 생활의 새로운 길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정권타도와 이경택후우 완전제상정취를 위한 애국의대 비상 학생총회'가 오늘(5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노정권정에서 열리며 포이카를 중심으로 30여명의 학생이 어제(4일)부터 현재까지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5일) 운영회의를 거쳐 오는 8일(금) 6월항쟁 계승 집회를 열고 9·10일(일) 상남에서 가두시위를 벌일예정이라고 있다.

이경택군 부상을 둘러싸고 있어 양캠퍼스에서 노정권 퇴진행위가 또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오늘 서울캠퍼스 비상학생총회에서는 '이경택군 타도'를 위한 전보상 △정화한 부상환안규명 △윤석열사상 공개사과요구 △노태우정권 타도 노태우정권 타도 결의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경택군 부상에 관련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월31일(수) '이경택후우에 대한 폭력행위 정산보고대회'를 7월 5일(일) 오후 1시 가운대 개회하였으며 6월3일(일)에는 1백여명의 파데프급군부대 모인



▲지난 5월31일(목) '이경택후우에 대한 폭력행위정산 보고대회'를 마련후 서울캠퍼스 교문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 대동제 총평

일반 학생과 거리면 대동제

준비미흡... 총학·단대 중심행사돼

지난주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민중당 완전분쇄와 남북한 전면개방, 자유경제 실현을 위한 애국의대 대동제'가 준비미흡, 일반학생 참여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채 진행, 지난 1일 마감됐다.

이 우리들 「주동제(化)」를 극복하지 못해 여전히 '술잔부리는 축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당초 6월투쟁에 앞서 학생들의 반만민중, 반미투쟁의지를 결집시킨다는 계획도 입자 당의 반만중·반미투쟁을 주요 하는 등의 행사가 실시되자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과파행위 중심으로 마련된 학생들의 싸움 등 후대가 계속나타나는 등 많은 학생들

이 준비미흡... 총학·단대 중심행사돼

상경대 전산실 설치 요구

"학교, 예산등의 이유로 난색표명"

지난해부터 대두해 왔던 '상경대 전산실 설치요구'가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없고 일반 학기 학생들의 요구가 점차 중대피자 상경대대학은 지난 5월부터 학교측에 '상경대를 위한 전산실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전산실의 설치'는 전산회의의 문제이므로 전산소를 따로 설치해 제2, 3전산소로 구분, 전산대인이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 1, 2 전산소를 설치할 경우 수요의 증가를 초래해 상경대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은 축소될 것이며 더구나 컴퓨터가 현재와 같은 디지털 상태로 기능화 확정된 상

경대 학생들의 전문적인 용도 및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상경대 학생회측의 의견이다.

타학교의 경우 경희대를 살피더라도 학교내 중앙전산소에 단대별로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경대의 경우(경희대는 정경대) 2개의 전산실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경대학생회 복지부장장은 "학내 바깥부서 전용장이 구두합의한 것이 여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후 학생들의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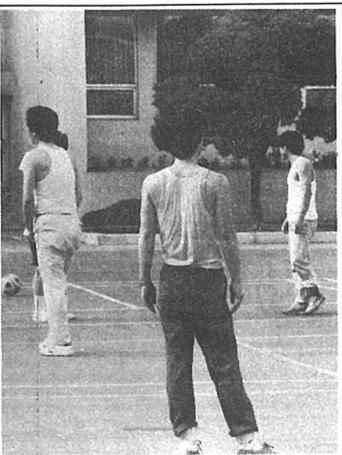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경대만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 타대학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



▲나이가 더러워지면서 학내에 속속들이 젊은 층에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다노출'이 오는 7월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주재영 기자)

하수동

▲세종대 공권력 투입
-또 하나의 '화려한 작전'
▲왕산대동제 폐막
-유승(후배), 주동(전배), 노동(후배)이 혼란된 총학생대주제
▲노태우, 고르바초프 정상회담
-다들 프로 채육은 '분당교' 축하하네!

여름방학중 학사일정

△8월	22일(금)	하계방학시작
	29일(금)	제1학기수강시작
△7월	16일(화)	89년도 후기졸업시정서회
	13일(일)~20일(일)	제2학기 복학·휴학학생시점
	20일(일)~24일(금)	제2학기개강
	23일(목)~24일(금)	제1학기성적확인
	27일(일)	제2학기 개강

이러는 더러운 폭력'이라고 답한다. 총학생을 임은 한자후 오후4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넘도록 자기자기로 끌고다니며 치료시키지 않은, 그것도 모자라 학자들 몸통으로 구덩이 건설한 비인간적 행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립운동가 김구선생을 살해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이 천구 이대장동 수많은 일사불란을 죽음으로 이른 역대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가해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죄사실을 곧 심판한다.

이군의 이번 사태도 결국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정권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임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군의 총학생과 저급까지의 정경태도 정권을 유지하기위한 반말차원을 떠나서라도 반인간성을 우리는 절개 할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생활과 생존권의 파괴공작이 한 걸음이 이라는 정경태는 직무수행은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리를 파괴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는 노정권의 뿌리를 뽑는 것이야 현실상의 근본적 해결의 임을 인식하자.

그렇지 않은 한 이군과 같은 시대의 뻔뻔한 가해자는 계속 권좌에 존속할 것이다. (이원영)

뻔뻔한 가해자

이군은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나자신의 우연한 실수도, 백골단의 폭력성도 아닌 노태우정권의 과잉진압

이군은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나자신의 우연한 실수도, 백골단의 폭력성도 아닌 노태우정권의 과잉진압

이군은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나자신의 우연한 실수도, 백골단의 폭력성도 아닌 노태우정권의 과잉진압

이군은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나자신의 우연한 실수도, 백골단의 폭력성도 아닌 노태우정권의 과잉진압

E=mc²

우리가 일체의 핵분열과정도

특히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주장된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이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 = mc² (정지하고 있을때의 질량 m일지는 E = mc²의 에너지를 가진 c는 광속도)을 기초로 제3의 불리아 불리우는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이 가능해졌다.

學問의 根源은 個性과 創意와 理解, 그리고 相互尊重의 精神입니다.

歲月이 흘러도, 世代가 變해도 學問에 대한 眞理는 變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個性과 創意성을 기르는 것이 學問探究의 基本이며 거기에 相互, 個性의 尊重과 理解의 姿勢를 더할때 學問은 더욱 成熟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는 이 넓은 社會를 보다 밝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創意력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現代



민족민주운동의 만일대오 결성을 위하여 4

라 경 훈
(현대사연구가)

1. 글을 시작하며

80년대 운동은 민족사력의 집단의 대두, 기층민중운동에 기초한 대중운동의 발전, 조직화-전국노동조합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맹회, 전국민중학생연맹, 전국대학학생대표자회의 등 결성의 성과를 축적하였습니다. 90년대는 운동의 성과와 확대성장이 뚜렷한 정치의제와 조직화 시키는데 있어 대대적(범민중연합전선)의 대중적 토대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의 3대 운동역량을 총체적 전선에서 발휘하면서, 전체적 권력 교체시기에 발이 걸린 반공과 마-노태우일당제의 극복을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 과제는 국민연합중심의 반민자당 투쟁전면화이며 구체적 전술지침인 '즉각총선' 통해 정세주도권 확보가 관건

이전 운동의 경험에서 얻어진 조직화의 문제와 후조 건설된 민주대원 합전선의 논의는 일의 기하내용(의) 대략 541, 542, 543호에서 개괄과 원인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의를 원시

2. 정치적세의 흐름과 상반기 과제

88년 이후 여소야대국회의 광우·5공기반정산, 민중운동단위에 대한 용인, 학원계에서의 보수연합으로 드러난 정책적 보수연합에서 공간양자화 통한 민중운동전선의 고요를 기초한 미국의 식민주의 지배체제 연방과 음모인 3당통합으로 전방위적 정치적 주도권이 민중에게서 지배체제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1.22정권과 3차의동은 한국전쟁이후 최대 규모인 전국적 노동자조직인 전노회결성시점전선으로 시차, 3당연합이 약속된 '민주·민중·통일'은 민중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사실투명하였습니다. 4.30선전에서는 민자당의 폐는 파소아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으며, 대구에서 학생세력의 참전은 대중의식화의 정도와 현실운동세력의 조직적 수순을 보여주기에도 있었지만. 또한 KIS·현대중공업파업과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국민대중의 생존권적 요구는 3당연합이 지닌 정치·경제적 책임을 폭로하였으며, 마침내 5월의 민자당

글쓰는 차례

1. 국민연합의 위상과 역할
2. <보문>합법정당 전술에 대하여
3. 국민연합의 조직적 과제
4. 현시기 제기되는 구체적 실천과제

적 역량이나 국민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급하게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구별해내고, 민주연합전선의 틀을 확대·발전시켜야하며, 정세의 주도권을 민중의 것으로 되돌려야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흥요구전선에 대한 민중의 진솔이 가속화되면 민자당합법화와 더불어 지배세력이 들어올수있는 내용(가), 즉흥의 성과(제2호정권(의)와)이 모두 보수당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두려워하여 당장 투쟁의 화살을 집중해야 할 마-노태우일당(주요공격방향)에게 투쟁의 모멘트를 늦추어야 한다는 데가주의적 요소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주연합전선내에서 범민중(의)도성·독자성 보장되지 않은, 주체적역량의 근원적 한계이지만, 우리가 즉흥전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선상에서, 투쟁방향을 공유가 이루어진 다면 범민중(의)의 합법적 진출이 가속화되고, 민주연합전선의 공부한 정치지침을 축적할수 있을것이며, 식민주의 대립구도가 거는 지배세력의 개입전술의 명확한 한계는 이후 89년 민중연맹회기에 범민중(의)를 위한 일정에 서게할 수 있는 전술적침착입니다.

5. 맺으며 - 6월절망

6월투쟁은 해체민자당, 피진 노태우의 추상적 수순과 기계적의 구조적인 반민자당투쟁의 내용이 밀집하게 연방되어지면서, 5월9일 민자당당 당인 정도의 투쟁이 시민들의 참여적역량인 호응속에서 전개될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장년학생들의 선봉적 투쟁과 결사투쟁은 현실투쟁의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될것입니다. 또한 지역적·계층적으로 하여 전술수호로써 '국회해산, 3당연합전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중운동이 전술수호의 유의미상을 확인해 줄것입니다. 6월의 국민은 각 부류운동의 기본적요구가 반민자당투쟁으로 폭발적으로 집중될 수 있어야하며, 하반기정치전선이 될 내각개혁운동과 한·소·우 시대로 드러나기는 반공전선과 투쟁의 한국 패권을 폭넓게 폭넓게는 공과대상이 마련되기를 해야 합니다.

3. 5월평가와 이후방향

5월은 수순불만, 국제경제체제를 원인으로한 자본축적상의 문제와 부흥산·물가폭등 등 민중생존권의 위기에 참여한 경제위기, 4.3선 위기에 노동자·농민계급의 완전한 권력인양적 위기는 집권세력 스스로 '총체적 반공'이라는 규정을 하기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에게서 벗어난 주체적역량의 한계(의)대략 543호(기회정권)는 5월9일 민자당결성운동 정점으로 전 국민적 행위의 성과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지만, 실제 민주대원연합의 명약인 국민연합이 확보하지못한 국민적 지도력, 대외권력에 대한 철학적실성, 변혁전열내 선봉대인 청년학생운동의 행위는 진중이 지속성있게 보장되지 못하면서 실제 투쟁의 형식과 내용이 광무로 집결되었지만 전국적, 지속적투쟁은 선명하게 되었습니. 우리운동이 획득한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은 당면해서 상응하는 대중운동의

민자당투쟁의 한 방향으로서 투쟁을 통일·집중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4.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실제로 87년 이후 급성정국은 범민중(의)는 국민적 과격파와 반공전선내의 개혁파까지 조망한 파우명향을 짚으면서 미래의 지경도전적의 일관된 분할투쟁을 알려주고, 파소전선의 부자비한 단결으로 인해 그동안 획득한 공동 투쟁의 성과(사상·의)와 조(중)를 일기에 벗어난정도의 성과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몇몇 운동단체에서는 구체적인 투쟁전술로 '노태우퇴진, 국회해산, 반민자당전선'으로 계안되고있습니다. 즉각총선(의) 즉(중)요구로 집중되는 이질성은 선거혁명론적 오류의 재 반복일수도 있으며, 민중권력에 대한 정량적 상실이라는 큰 난관을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중요구의 전술적 유의미성과 더불어 현시기 구체적 지침이 될것입니다. 당면해서 우리는 전선적 대대전선으로 전진할수 있는 조직

역사기행

네번째 / 판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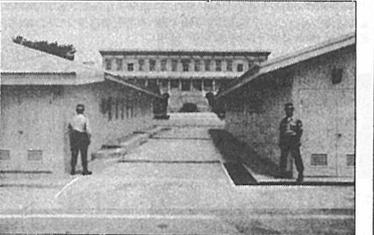


하리리리이전 조국을 하나로 이르는 통일의 함성은 북으로 갈수록 더욱 깊숙히 울려져있다. 지난날 만도 삼천리를 단숨에 내달렸던 철마가 지금은 입진강변 철도종단점에서 발이 묶여 연가없는 기적소리가 내뿜고 있다. 조국분단의 내명하는 미국과 독재정권을 찬양하면서...

대중운동체로 추진된 7·4 독립선언

대중운동체로 추진된 7·4 독립선언은 민족사력에 실려있고, 이것은 민족의해방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국토순례단 순례대행정과 8·15 남북청년학생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8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조국순례대행정 기간으로 정하고 판문점에 집결하여, 15일에는 남북학생이 만나 조국통일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토론한다는 것이다. 이 행사도 원전봉쇄와 탄압체정으로 무산되었지만 한반도 민족민주운동의 원천적 진원지였고, 한국사회혁신운동에 적지않은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88년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몇가지 한계성도 노출되었다. 당시 가장 중대했던 핵심사건이었던 남북통일회담이 그 논의가 집중되지 못하고 학회회담상에서만 급급하여 대중적지지기반을 상실했다는 점과 반민주주의파워블의 결합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한계성들을 극복하고 긍정적 성과를 계속하여 통일운동을 범민중적·민주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그 임무를 다한다는 분명 우리의 통일전망은 밝고다.



군사분계선내의 아이마란

군사분계선내의 아이마란 경비병들을 보고 있으면 전쟁터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전쟁터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민중 평화노선을 고수하기만 하다. 동강간 조국의 상징물 6.25는 일개 주마귀에 불과했던 흔적을 분단의 상징물로 부상시켰고 그로부터 권력의 역사는 그 오욕의 서장을 펼쳐가 왔다.

신촌, 서울역, 홍제동, 문산역, 영일로 일대에서 서로의

분단의 상징물 판문점, 자유왕래·전면 개방 실현을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자해되었다. 영구분단에 사할을 전 박정희군부는 70년 8월 15일 지배체제유지의 용무가 으메된 '평화통일수상선언'을 선포하였고 이로부터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마다 기만적 '남북대화'를 조작하여 판문점의 역사를 위장하고 개념으로 일국적세력 하였다. 그때마다 기대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배어난 좌절까지를 연가만에 맞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오욕된 역사를 써서 나가려는 열혈청년화도들은 허구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파헤치기까지 결연한 의지로 투쟁하여 역사의 진실함을 일깨워왔던 것이다.

이제를 옮겨놓고 통일로 난 권위에 드러내어 어떠한 광란적 지배체제유지의 용무가 없게 되자 판문점까지 고난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무차별로 나서는 최후의순수에서 조국 물러서지 않고 '백두의 진원지를 알리고 그대들이 여기로 오고, 한라의 유체를 안고 우리가 거기로 가'야한다.는 통일의 염원을 절규하며 승리의 전군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욕의 애도들은 허구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파헤치기까지 결연한 의지로 투쟁하여 역사의 진실함을 일깨워왔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후 가장 광범한 민족민주전선의 참여에

타이어는 역시 한국타이어

祝
KMA/90 한국경제대상 최우수 기업상 수상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22일, 한국농림협회의서 519개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우량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90년도 한국경제대상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타이어로 150여개국에 수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로 명성을 거둔 한국타이어, 인재가 가장 소중히 여겨는 한국타이어는 기술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보장을 적극지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TIRE

기업은 人材를 만들고 人材는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22일, 한국농림협회의서 519개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우량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90년도 한국경제대상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타이어로 150여개국에 수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로 명성을 거둔 한국타이어, 인재가 가장 소중히 여겨는 한국타이어는 기술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보장을 적극지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TIRE

분단된 허리 보듬어 「전면개방」 「자유왕래」 실현해야...



조승채 (사학자 북한담당사 기획위원장)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계 중 통일캠퍼스에서는 사학과가 가장 먼저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학계내 학술교류가 제기되는 인제대학교가 꼽힌다.

—처음에 「북한담당사」는 말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이제껏 추진되어온 인제대는 사학과 학과 차원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경 부처 경매와 직결을 시

했으며, 그후 2월말 「북한담당사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말 사학과 학과 차원에서 기획위원회가 수립되어 「남추위」가 기획위원회(이하 남추위)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의 상황은 예비심사 학사기 포함되었으며, 「북한담당사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최남성(사학자 기획위원장)의 승인과 받아 놓고, 「북한담당사」를 총괄하고 있는 조승채는 아직까지

『학술교류 성사로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개성사범대학교 사학과를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이제껏 추진되어온 인제대는 사학과 학과 차원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경 부처 경매와 직결을 시

있으며, 방북이 단순히 사학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의대의 인적응용과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까지 찾아야 할 사항이다. 셋째로 국민과의 연대와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단순히 통일과 남북의 문제가 아닌 민족공동의 모순을 해결하는 선결과제를 명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역사 인식의 차이로

최근,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88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본교생 임수경대표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운동의 성과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김인오 (모의UN총회 준비위원장)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모의 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북한담당사」가 이루어진 면은 학년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국가를 정경적으로 있는 교육부나 준비기구인 「남사추진위원회」(이하 남추위)가 정식화하면서 남추위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져서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남추위의 공적적으로도 「중국어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남사추진위원회」에서 세게 되었었다.

군·행정·병·모집

▲타자 행정병
▲매일 1회 단독입영
▲성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735-2323
735-9716

유니타지학원

女事務

秘 女 經 理 O.A
書 查 理 者

워드프로세서
여성·어고·초·대졸
단기교육 책임취임
(재학생 수강료할인)

732-3375

운전을 배우시다

22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험각 교육
②타코스 무료 운행
③대학생, 직장인대상 특별우대
④외국(인간) 출국차 특별한정
⑤실습시간 자유선택
⑥출국차 무료 운행
유니타지사 시내내선전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 매주월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 學院	영동로 양정동 경인고속도로입구 (633)	0036~7 3962 3963
西 部 學院	은행로양정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 部 學院	도봉로 반포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나라기학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선조들의 슬기로운 삶이 깃든 빗살무늬토기

김해박물관의 해리도
유물전시관의 세련된 대리석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정성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이해 대학신문 광고에도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이 담겨야 합니다.
같은 생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나라기학이 여러분의 의견을 거두어드립니다.

누가: 대학신문광고에 관심있는 본문의 누구나(교육원·학생 및 동문들)
무엇을: 대학신문 광고를 두고 “이런 안 좋은데” “요즘 광고요”
“이런게 실리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재량이 자유롭게 (design 및 copy도 포함)
아дрес: 100-120 서울 중구 경동34-5(구)백재학교 주서실103호
(주:나라기학 광고팀)

연 계: 지류 관(연락처도 거대하고 있습니다)
기 타: 궁금한 점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TEL: 779-235-6)

※위클리 모자이크 본지는 소중히 거두어드립니다.

